

65 | 선박 건조 근로자에서 발생한 돌발성 특발성 난청

성별	남	나이	44세	직종	선박 건조 및 수리업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 개 요

근로자 김○○은 2008년 5월 ○○중공업 하청업체인 ○○(주)에서 석유시추선 건조작업 과정 중 우측 청력 이상으로 진찰을 받은 결과 돌발성 특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2 | 작업내용 및 환경

○○(주)는 ○○중공업 하청업체로서 석유시추선 건조작업 과정 중 방열 방음제 시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이다. 작업시간은 오전 8시~오후 6시까지이지만 잔업 등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75-80시간이었다. 김○○은 현장에서 근무한지 2개월 된 보조공으로 독단적인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작업장 내 보조 역할과 청소 또는 자재운반 작업을 주로 하였다. 진술보고서에는 소음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본인 면담에서는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한 소음 측정결과 2008년 10월 6일 난청발생 대상의 동료 근로자 4명이 근무하는 환경에 대하여 소음 노출 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96.1, 93.5, 87.9, 107.9 dBA (노출기준 90dBA)였다.

3 | 의학적 소견

근로자 김○○은 2007년 5월까지 특별히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경험한 적

이 없으며 주로 영업과 판매직에 종사하였다. 음주와 흡연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질병력은 없었다. 상기 근로자는 ○○산업에 2008년 3월에 현장 근로자로 입사하여 작업하던 중, 같은 해 5월 초경부터 두통과 체력저하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잠을 잘 자지 못했는데, 5월 10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른쪽 귀가 갑자기 안 들리기 시작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돌발성 특발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발병 9일 후 청력저하가 있었던 4000 Hz의 역치가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발병당시에 있었던 이명은 지속되고 있었다. 특진당시(2008. 10.14)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우측은 6000 Hz에서만 40 dB의 청력손실을 보였으며 양측 고막 정상, 어음 명료도 검사에서 양측 모두 정상, 중이강 상태가 양측 모두 정상, 등골근 반사 양측 모두 정상, 뇌간유발 반응청력검사에서는 V파의 역치가 좌우 모두 35 dBHL, I파~V파가 정상, 잠복시간 정상소견으로 나타났다. 변조이음향방사에서 좌우측 모두 1~8 kHz까지 양성반응을 나타내었다.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상위 25%로 다소 높았지만 심박동수 변이를 이용한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4 결 론

근로자 김○○은

- ① 산업의학적 평가 결과, 돌발성 난청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청력역치이동으로 판단되는데,
- ② 검사결과와 경과관찰에서 전형적인 돌발성 특발성 난청의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고, 현 사업장에서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수준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이 일시적 청력 역치이동의 원인이 되었고 시간경과 후 회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